



우수수... 강풍특보가 내린 광주·전남지역에 11~12일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낙과 피해 등이 잇따랐다.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배 과수농가에서 한 농민이 12일 강풍으로 떨어진 배를 주워담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풍·해일·폭우... 피해 속출

주말인 1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순간 최대풍속 37.8m(흑산도)가 넘는 강풍이 불어 3명이 실종되고 농작물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특보와 해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에 188.5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개릴리성 폭우가 13일 오후까지 40~150mm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3명 실종·저지대 침수 오늘까지 최고 150mm 더 내릴 듯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낮 12시께에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계동마을 인근 해안가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낚시를 하던 최모(여·33·목포시 상동)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시설물 파괴 속출=12일 오후 2시 목포시 옥암동 전남도청 사거리에서 설치된 3m 높이의 홍보탑 3개가 넘어졌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H직업학교의 대형 간판도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인명 피해=12일 낮 12시40분께 125mm의 폭우가 쏟아진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신안군 흑산면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0.6t급 FRP선박이 반파됐다.

나과로 인한 과실수 피해나 비닐하우스·농작물·수산 양식장 피해 등은 이날 현재 시군별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통통제=중랑특보가 발효된 바닷가엔 3~5m의 높은 파도가 일어 목포·여수·완도 등에서 섬 지역을 잇는 51개 항로 중 37개 항로 44척의 여객선 발이 묶였다.

여수~김포 국내선 항공기 2편이 결항했고, 광주공항을 오가는 36편의 항공기 일부도 지연 운항을 하는 등 주말과 휴일 뱃길과 하늘 길이 강풍과 폭우로 운항 차질을 빚었다.

◇피서지 '한산'=구례·순천·흑산도·홍도에 '호우경보'(12시간 강수량 150mm 이상 예상), 나머지 지역에 '호우주의보'(80mm 이상)가 내려지면서 지리산과 월출산 국립공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해일주의보가 내린 진도·가례·완도 명사십리 등 전남지역 유명 해수욕장의 출입도 제한됐다.

연일 피서 인파로 붐비던 나주 중흥 골드스파엔 휴일인 12일 평소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천여 명이 찾았고, 광주 급호 패밀리랜드에도 평소 25% 정도인 7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이후 계속된 강풍과 호우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6곳 ▲주택·시설채소·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에서 모두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풍에 여객기 활주로 이탈

어제 오전 김해공항 승객 10여명 부상

12일 오전 9시37분께 승객 74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한 제주발 제주항공 7C 502편이 계류하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다 갑자기 기체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비행기가 활주로 옆 녹지대 배수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승객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23분간 폐쇄해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다.

또 비행기가 배수로 설비와 부딪치면서 왼쪽 프로펠러가 파손됐으며 동체 앞 부분이 찌그러졌다.

사고 항공기는 터보프롭인 캐나다 볼바디어사의 Q400 기종이다. 항공기는 이날 공항 상공에 초속 26m나 되는 강한 배풍이 부는 바람에 정상 방향(남→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여객기가 옆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에 활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행기 꼬리부분에 있는 방향타(rudder)가 고장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수 낙마 사망 경마 경주 취소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토요경마 제7경주에서 임대규(41) 기수가 말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날 11번 마 '크라온포에버'에 기승했던 임대규 기수는 경주가 시작된 지 1분여 만에 3코너 초입에서 말이 차지 불량으로 왼쪽 앞다리를 부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이번 경주는 1천400m를 달리게 돼 있었으며 사고는 첫 코너를 돈 뒤 두 번째 코너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일어났다.

KRA(한국마사회)는 11일 잔여경주(9·10·11경주)와 12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예정이던 11개 경주를 모두 취소했다. /연합뉴스

시신기증 유서 남기고 60대 男 숨진 채 발견

광주 북구 매곡동

1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안모(69)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김모(4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3~4일 전 시골에 가기 전에 마지막을 봤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보이지 않고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가봤더니 안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전남대 병원에 시신을 기증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달라. 시신 기증이 안 될 경우 화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대로 시신을 전남대 병원에 기증할 계획이나 부패 등으로 심하게 훼손돼 기증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오던 안씨는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 등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대만 이효리' 사명센 사진 판권료

빛 안값으려 상속권 포기 못한다

대법 "사해행위" 판결

▲사해행위(詐害行爲)=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이모(43)씨가 김모(여·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김씨와 어머니 오씨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김씨의 어머니 오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숨진 남편의 부동산 상속분 일부를 딸 김씨에게 무상으로 넘기자 김씨를 상대로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그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명센 사진 판권료

○"대만 이효리"라 불리는 가수 사명센(사진)의 전(前) 소속사가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및 판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명센의 전 소속사인 H엔터테인먼트사는 소장에서 "모바일서비스회사인 N사가 사명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통신회사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주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명센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섹시스타로 인기를 끌며 '대만의 이효리'라 불리는 가수 사명센은 최근 휴대전화로 통한 섹시화보로 국내에 알려져 있으며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 갑작스런 강풍 왜?

태풍이 만든 열대 저압부 영향

광주·전남에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어닥친 것은 소멸한 태풍이 만들어 낸 열대 저압부(低壓部) 때문이다.

열대 저압부는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 중심기압 960hPa·최대풍속 초속 17m 이하로 중심 부근에 강한 폭풍권을 가지고 있다.

강풍 피해를 가져온 이번 열대 저압부는 지난 5일 일본 오키나와 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파부'(Pabuk)와 지난 8일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우팁'(Wutip)이 9일과 12일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두 태풍에서 비롯

된 열대 저압부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이 두 열대 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초속 10~18m

가 넘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2~6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는 15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에서 관측된 최고 강풍은 지난 2000년 8월31일 태풍 '프라피룬' 당시 순간 최대풍속 58.3m(흑산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모디쉬갤러리' (Modish Gallery) featuring a '夏 특가판매' (Summer Special Sale). It displays various interior furniture items like sofas, beds, and tables,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T 파워텔' (KT PowerTel) featuring a woman holding a mobile phone. The ad promotes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Safe and fast/accurate cutting-edge call system) and lists services like '무선기계 호출, GPS기능차량' (Wireless device call, GPS vehicle tracking) and 'KT 파워텔' (KT PowerTel). It includes a phone number 062-526-0130.